

완벽한 탐정

정민영

나는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열두 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빠질 줄이야. 학교가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인사할 새도 없이 부리나케 아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다. 얼마 전 동생을 낳은 엄마를 대신해 몸이 불편한 아빠를 돌봐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엄마가 집에서 좀 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오월 말이라 그런지 병원에 도착했더니 땀이 많이 났다. 곧 더워지려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오메, 은주 왔네잉.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늦어 부렀네.”

“아빠랑 손아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음께 언능 오시게.”

병실 여기저기서 나를 반겨주신다.

얼른 책가방을 내려놓고 아빠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게 해 드렸다. 아빠는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 없다. 어른들 말로 ‘짐승 같은 그 계엄군’ 들이 아빠 몸을 영망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곤봉으로 얼마나 내리쳤는지 아빠의 온몸은 피투성이에다 사진기를 뺏기지 않으려 했던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다 부러져 버렸다. 휴,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무섭다. 금남로에서 몰래 사진을 찍으며 취재를 했던 아빠는 그나마 엄청 맞고 끝났지만, 다른 대학생들과 젊은 아저씨들은 죽도록 맞고 다 끌려가 버렸다고 했다.

“개나 짐승들한테도 그렇게는 안 때릴 것이여!”

어른들은 그때를 얘기할 때마다 진저리를 쳤다.

근데 아빠한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아빠가 늘 사용하는 베개를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한다는 거다. 도대체 베개 속에 뭐가 들어 있길래 빨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지. 세탁하는 아줌마가 오실 때마다 내가 다 난처하다. 입원한 뒤로 한 번도 빨지 못한 아빠의 하얀 베개는 이제 누렇게 돼버렸다. 아빠는 내가 베개로 투덜덜 때마다 얘기한다. 언젠가 때가 되면 베개를 세탁할 수 있을 거라고. 어서 그 ‘때’ 라는 게 빨리나 왔으면 좋겠다.

어, 저기 또 나타났다! 며칠째 우리 병실을 엿보는 남자다. 오늘도 여지없이 병실 복도를 서성인다. 악당이 생각나는 우락부락한 얼굴과 커다란 덩치가 조금 무섭기까지 하다. 불쑥 들어와 병실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병원 다른 층에서도 기웃거리는 걸 봤는데. 분명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 이제부터 그 수상한 남자를 ‘기웃기웃’ 이라 불러야겠다.

기자의 딸인 내 축으로 ‘첩자’, 일명 프락치인 게 틀림없다. 계엄군들이 난리를 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병원이나 사람 많은 곳에 프락치들이 광주 시민들을 영타하고 있다는데.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도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갔으면 됐지 아직도 전두환은 광주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난다.

‘잡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았나? 아니면, 수사반장에 나오는 사람이랑 비슷한 잠바를 입고 있던데 형사인가?’

기웃기웃이 누구일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순아가 나에게 아는 척을 했다.

“언니, 심심한데 나랑 동전놀이 할래?”

십 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을 맞추며 노는, 순아와 내가 자주 하는 놀이다.

일곱 살 순아는 병실 창가 쪽에 계신 할아버지의 손녀딸이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서 아예 먹고 자고 있다.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때리는 계엄군에게 한마디 했다가 집단 구타를 당했기 때문이다. 잘 씻지 못해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몇 번 세수를 시켜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를 잘 따른다.

“순아야, 지금 동전놀이 할 때가 아니야. 나 따라와 봐.”

눈을 동그랄게 뜬 순아가 내 손에 끌려 따라 나왔다.

“저기 서 있는 잠바 입은 아저씨 보이지? 여기서 네가 안 보는 것처럼 조심해서 잘 살펴봐.”

순아에게 귓속말로 얘기했다. 순아는 생각보다 내가 한 말을 잘 알아들었다. 티 안 나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웃기웃은 우리 병실 바로 밖에서 왔다 갔다 했다. 잠시 후에 복도를 지나 병원을 나갈 때까지 나와 순아는 기웃기웃을 조심조심 미행했다.

병실에 들어오더니 순아가 말했다.

“언니, 우리가 꼭 만화에 나오는 탐정 같다. 재밌다, 언니야.”

순아가 모처럼 밝게 웃었다. 순아는 원래 잘 웃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웃게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걸 좋아할 줄이야. 어쨌든 순아가 재미있다고 하니 우리는 앞으로 계속 탐정 놀이를 하기로 했다. 물론 난 순아처럼 놀이가 아닌 진짜 그 남자의 정체에 궁금해서 지만 순아에겐 그냥 놀이라고 했다.

“순아야, 이제 난 내 조수야. 잘할 수 있지?”

순아의 눈빛이 반짝였다. 오늘부터 나와 순아는 어린이 탐정이 되었다.

그 시간 이후로 우리의 눈과 귀는 복도를 향했다. 특히 순아는 놀이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내 명령을 수행했다. 임무라고 해봐야 기웃기웃이 왔는지 살피는 정도인데도 말이다. 순아는 눈이 빠져라 병실 복도를 노려보고, 수시로 복도 주변을 정찰 다닌다. 누가 봐도 모를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 바로 순아가 병원에서 언제나 딱히 할 일이 없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어디를 쳐다보건 어디를 가건 그건 늘 순아의 일과이기 때문에, 아무도 순아가 임무 수행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따라 그런 순아가 그렇게 이쁘고 든든할 수가 없다.

저기 또 기웃기웃이다! 탐정놀이도 할 겸 순아와 병원 주변을 산책하다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힘이 잔뜩 들어간 구부정한 어깨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를 지나는 척하며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들었다.

“잘 살피고 있습니다. 별 이상한 점은 없…….”

이럴 줄 알았다. 내 짐작대로 병원을 몰래 염탐하는 프락치가 분명하다. 우리 병실 식구들은 지은 죄가 없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자꾸 우리 병실을 기웃거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조심해야겠다.

내 생각보다 그 ‘때’ 라는 순간이 빨리 찾아왔다. 어제 신문사에서 아빠 친구분이 병문안을 왔다 간 뒤로 아빠는 내내 말이 없이 무언가를 계속 고민하는 눈치였다. 그런 아빠가 오늘 내게 서랍 속 쪽지를 보라고 말했다.

‘오후 3시, 병원 휴게실, 막스 슈미트.’

손글씨가 아닌 누군가 타자로 쓴 글씨다.

병실 식구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은주야, 좀 이따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아빠 심부름 좀 해 줄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빠가 다시 말했다.

“카메라를 멘 외국인이니깐 찾기 쉬울 거야. 아빠가 주는 물건을 건네주기만 하면 되는데, 되도록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전달해 주면 좋겠다.”

아빠가 나에게 베개 속에 손을 넣어 보라고 했다. 이 꼬질꼬질한 베개를 만질 날이 오다니! 베개 속으로 조심스레 손을 넣어보니 진짜 무언가가 만져졌다. 바로 돌돌 말린 양말이었다. 아니 고작 이런 양말 때문에 그동안 아빠는 그렇게 베개를 못 만지게 했던 거야? 황당한 내 기분과 달리 꼬리꼬리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 양말 속에는 동그런 물건까지 들어 있었다. 나야 양말이든 뭐든 아빠 심부름만 잘 하면 되니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말이다.

“너희들만 믿는다. 조심히 잘 다녀와라.”

뭘 믿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순아와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실을 나와 휴게소로 향했다. 주머니에 숨겨놓은 양말이 안 보이게 옷으로 잘 가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애썼다. 조금 긴장한 나와 달리 순아는 소풍 가는 어린이 마냥 잔뜩 신이 나 있다.

‘양말 속에 든 게 대체 뭘까?’

궁금해 죽겠는데, 화장실에 가서 한 번 볼까? 아니야, 잘만 전달하면 아빠가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어! 저기 진짜 외국인이다. 휴게실에 키가 큰 푸른 눈의 외국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기웃기웃이 반대편 복도에서 외국인을 훑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다. 뭔가 알고 온 게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기웃기웃이 분명 나를 알고 있을 텐데, 순아한테 시킬 수도 없고. 아! 어떡하지. 양말을 전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다. 다행히 아직 우리를 보지 못한

거 같으니 이제 방법은 하나다.

“순아야, 언니가 휴게실에서 아주 중요한 볼일이 있는데 기웃기웃이 보면 절대 안 되거든? 네가 말을 걸어서 언니를 못 보게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순아가 아무지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우리 탐정 특공대가 나설 때가 되었다. 순아가 무언가 찾는 시늉을 하며 기웃기웃 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십 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울 듯 입을 삐죽이는 순아가 발을 동동거리며 애원했다. 그러자 기웃기웃이 순아와 외국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했다. 순아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번엔 바짓가랑이를 잡고는 찾아 달라고 떼를 썼다.

“아저씨 얼른 찾아주세요!”

머뭇거리던 기웃기웃이 결심한 듯 순아를 확 떼어내며 말했다.

“꼬마야, 저리 가. 지금 동전 찾을 시간 없어. 바쁜데 귀찮게시리…….”

형상국은 얼굴이 더 일그러지더니, 기웃기웃이 뒤도 안 돌아보고 휴게실로 향했다.

‘아!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세상에나! 순아가 번개처럼 달려 기웃기웃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 거다. 그러고는 이내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며 큰소리로 울었다.

“못 찾으면 할아버지한테 혼나요. 제발 찾아주세요. 으앙.”

순아가 서럽게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웃기웃을 흘깃거리며 쳐다보았다. 그 따가운 눈총에 어쩔 수 없다는 듯 기웃기웃이 마지못해 동전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외국인에게 접싸게 다가가 양말을 건넸다. 슈미트는 왕사탕 세 개와 ‘뱅크’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임무를 무사히 마친 나는 얼른 순아에게 갔다. 순아와 기웃기웃은 쭉그려 앉아 동전을 찾고 있었다.

“순아야, 뭐 해?”

“동전 찾아.”

“언니가 십 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어? 봐! 여기 있잖아.”

순아에게 손바닥 위 십 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며 말했다. 기웃기웃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와 순아를 번갈아 쳐다봤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는 순아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첫 임무는 완벽했다. 임무를 무사히 끝낸 후 맛본 왕사탕은 정말 최고였다.

‘와! 너무너무 달콤해.’

순아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히 웃었다. 역시, 우리는 완벽한 탐정이야!

보름쯤 지나자 아빠는 양말 속 비밀 물건이 필름이라고 말해줬다.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간 필름은 이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솔직히 광주의 진실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가 찍은 그 사진으로 우리 광주의 아픔이 거짓으로 말해지지만 않았으면 진짜 좋겠다.

참! 이쯤에서 모두들 궁금해 할 기웃기웃은 어떻게 됐냐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병실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이 병실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